

나는야 신나는 홍보돈

●
●
제가 서울에 온건
술집 알리기 위해서죠
인터넷 홈페이지 오른 동료 꿀꿀이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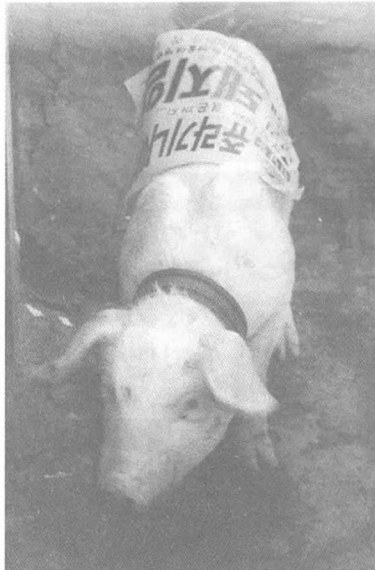
●
●

전 강화도에서 났어요.

지난달 초 9만원에 팔려 서울로 왔죠. 저를 데려온 새엄마를 선전하고 다닌답니다. 서울 원남동 '쥬라기' 나이트 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남자 엄마' - 불경기로 뜬해진 술꾼들의 발길을 당기는 일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요즘 '돼지 엄마'는 '박찬호', '이휘재', '차범근' 등 라이벌을 제치고 인기 상한가래요. 모호텔의 돼지 엄마는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니까요. 어떤 이는 복고풍이라고도 하더군요. 하긴 엄마랑 제일 친한 동료 '체비' 아저씨는 얼마전 이름을 '변강쇠'로 바꾸고선 상투를 틀었다니 눈길끌기 작전엔 끝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엄마를 따라 중로·대학로·성균관대 앞 등 하루종일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길가던 분들이 얼마나 저를 귀여워하는데요. 와서 막 쓰다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요. 전 아무거나 잘 먹지요. 동네 식당 아주머니들도 남은 음식, 과일 껍질 같은 걸 한아름씩 갖다 줍니다.



아저씨도 '돼지 엄마'를 아신다고요? 맞아요. 옛날엔 돼지 엄마가 많았대요. 돼지·개똥이·못난이처럼 귀한 아이를 일부러 흉한 이름으로 부르며 역신(疫神)의 접근을 막았대나요. 그래서 대개 '돼지'는 2·3대 독자기 일쑤였고, 돼지 엄마는 아들 친구들에게 늘 푸짐하게 먹을 걸 주곤 했지요.

그런데 자꾸 몸이 불어 걱정이예요. 엄마는 강아지만한 제가 세퍼드만큼 자라면 강화로 가서 작은 길로 바뀌운대요. 저는 서울 생활이 재밌는데... 혼자 외롭지 않냐고요? 친구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저같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일하는 애들도 있고 온세통신 광고에 나오는 녀석처럼 최민수씨 품에 안겨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친구도 있지요. 그 광고,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우리들이 더욱 바빠질 것 같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저는 살코기 말고 근사한 사진 한장을 남기고 싶어 포즈를 잡아봅니다. 웃는 표정을 위해 '김치~'. **養豚**